

채용행사 정보 등 홍보사항

****참여전,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0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 (6.17~6.18)

일시	2020 6월 17~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장소	킨텍스 제1전시장 5홀		
참가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군 전역예정장병		
행사구성	채용면접 및 상담, 1:1 맞춤 취업컨설팅, 시 현장매칭,		
주최	대한민국 국방부		
주관	국방전직교육원		
기업신청기간	취업박람회 사무국문의	개인신청기간	홈페이지 사전접수 및 행사당일 참석
문의처	02-2006-6131	FAX	---
담당자		E-MAIL	moti@career.co.kr
사이트(출처)	http://moti.career.co.kr/default.asp		

사이트 출처: <http://moti.career.co.kr/default.asp>

신기술 분야 직무 수행을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알려드립니다!

- 클라우드플랫폼 구축, 수소연료전지제조 등 4차산업혁명, 비대면 산업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20개 신규 개발·고시
- 산업기술 변화가 빠른 정보통신,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분야 포함 138개 NCS 개선

❖ “비대면산업 확대로 클라우드플랫폼구축 NCS,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해법될 것”

최근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비대면 방식의 디지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클라우드 산업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분야 시장규모*는 매년 40%이상 성장하고 있고 종사자 규모도 10만 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시장 성장 속도에 비해 클라우드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한 시점에 ‘클라우드플랫폼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은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에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클라우드 시장규모 2조9천억 원(2019년 클라우드산업실태조사,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클라우드플랫폼구축 NCS 개발위원) -

❖ “수소연료전지제조 NCS, 수소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에 디딤돌이 될 것”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목표로 정부가 수소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적시에 개발된 ‘수소연료전지제조’ 국가직무능력표준(NCS)는 점차 증가하는 인력 수요에 맞추어 제조 부분의 고용창출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주)가온셀 ○○○(수소연료전지제조 NCS 개발위원)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신규 개발한 20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이미 개발된 NCS 중에 개선 작업을 완료한 138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6.12.(금)자로 확정·고시했다.

○ 지난해 확정 고시(‘19.6.1)된 1,001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이어, 이번 고시로 현재까지 총 1,022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개발되었으며,

* 기존 타일석공시공 NCS가 개선되면서 타일시공과 석재시공 2개로 분할

○ 새롭게 개발된 2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대국민 의견수렴, NCS 품질관리위원회 및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누리집(www.ncs.go.kr) 자료실 내에서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상세확인 가능

- 이번에 개발·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합기술 확산,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 전 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직무를 선정하였으며,
- 클라우드플랫폼구축, 수소연료전지제조, 스마트공장 시스템설치 등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산업 분야의 직무가 대다수 포함되었다.

< 개발·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20개 목록 >

구분	연관 NCS
스마트시티	지능형교통체계(ITS) 기획 및 설계, 지능형교통체계(ITS) 개발 및 구축, 지능형교통체계(ITS) 운영 및 유지관리
스마트제조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시스템설치, 3D프린팅 소재개발, 스마트팜계측
바이오	유전자변형
그린에너지	수소연료전지제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IoT시스템연동, 소셜미디어방송서비스, 커넥티드카콘텐츠서비스
데이터산업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 구축
인공지능	인공지능모델링, 라이다(LiDAR)기기개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재료개발
정보보호	블록체인서비스 기획, 개인정보보호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플랫폼구축
환경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 하수관로시설운영관리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체계화한 것으로 직업·직무 관련 종합 데이터베이스이자,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양성 지침서이다.
- 이번 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서비스기획 등 신규 NCS 개발로, 교육·훈련 현장에서는 산업 변화를 반영한 실무 중심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련 자격 신설 및 훈련과정 개설도 가능해졌다.
- 또한 기업에서는 실무형 인재 채용 및 직무중심 인사 관리 기준으로 활용되어 기업의 인적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산업현장 변화에 맞춰 이번에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관계부처, 산업계, NCS 사용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 특히 이번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LG전자, 네이버, (주)유진하이텍 등 총 1,350개 업체의 검증을 거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현장성을 높였다.
 - 또한 올해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무별 능력단위에 대한 기업현장에서의 활용도(중요도·난이도·빈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NCS 누리집(www.ncs.go.kr)에 참고자료로 공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산업환경 및 기술의 변화, 법령개정 등 산업계 요구에 따라 기개발된 NCS에 대한 개선도 함께 진행하였다.
 - 산업기술 변화가 빠른 빅데이터분석, 핀테크엔지니어링 등 정보통신 분야 44개 NCS를 집중 개선하였고,
 - 관련 인력 양성이 요구되었던 소재·부품·장비분야인 반도체, 자동차 분야, 산업안전 강화에 따른 소음진동관리 등도 개선 대상에 포함하였다.
- 고용노동부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에 추가로 개발 고시된 클라우드컴퓨팅, 스마트공장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신기술 분야의 자격, 교육훈련에 활용하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 강조하고,
 -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untact), 4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개선하고, 현장 통용성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인정받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되도록 품질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금번 고시·확정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NCS 누리집(www.nc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NCS활용법”을 학습자용(취업준비생), 교수자용, 기업인사담당자용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NCS 누리집 ‘NCS자료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요
2. ‘19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직무 개요

 공공누리  출제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박세은 사무관(☎044-202-7289)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 NCS개발개선부 황정연부장(☎052-714-8704)에게 연락바랍니다.
---	---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의의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 등의 내용을 직무 분야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바탕으로 직업교육(특성화고, 전문대)·훈련(폴리텍, 훈련기관) 및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도록 개편하고,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 및 인사관리(승진·업무분장 등)를 유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구성

-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는 NCS 분류상 세 분류를 말하며, 통상 하나의 학과 또는 채용의 모집 단위에 해당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직무에 필요한 능력에 해당하는 10~30 개의 능력단위로 구성
 - 능력단위는 교육·훈련의 과목, 업무분장의 단위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의 최소 단위
- 능력단위의 내용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및 수행준거이며, 학습목표, 평가기준 등으로 활용됨

< 예시: 'IoT시스템연동'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직무 (NCS)	능력 (능력단위)	세부능력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 일부 내용만 발췌
IoT시스템 연동	IoT시스템 연동 설계	시스템 연동 분석하기	○ IoT시스템 연동 대상을 분석할 수 있다. ○ IoT시스템 연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 IoT시스템 연동을 위해 구성하는 모듈을 분석할 수 있다. 【지식】 ○ IoT HW에 대한 지식 ○ 유/무선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지식 【기술】 ○ IoT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IoT Hw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태도】 ○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태도 ○ 모듈 동작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는 태도
		시스템 연동 아키텍처 설계하기	
		시스템 연동 규격 작성하기	
	IoT시스템 연동 모듈 개발 · · ·		

분야	개발 NCS	직무정의	개발 필요성
스마트시티	지능형교통체계(ITS) 기획 및 설계	지능형교통체계(ITS) 기획 및 설계는 최적화된 지능형 교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구상에서부터 사업추진방안수립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교통체계지능화사업 및 서비스 등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일이다.	- 정부의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및 차세대 ITS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등 범정부 주요 정책인 '20년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ITS 집중 투자 예정 - 이에, ITS 산업에 대한 신규 인력 수요가 많이 발생할 예정이며, 융·복합 전문 인력 양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 필요
	지능형교통체계(ITS) 개발 및 구축	지능형교통체계(ITS) 개발 및 구축은 이용자에게 실시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능형교통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H/W, S/W를 개발하고 구축하는 일이다.	
	지능형교통체계(ITS) 운영 및 유지관리	지능형교통체계(ITS) 운영 및 유지관리는 교통정보를 수집, 가공 및 종합 분석하여 도로 이용객에게 실시간 교통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 알맞은 차세대 교통체계를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일이다.	
그린에너지	수소연료전지제조	수소연료전지제조는 수소의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제작을 기획하고 단위전지, 스택, 공기공급계, 열관리계, 열회수장치, 연료공급계, 수소연료전지 제어기 등을 설계·제작하며 시스템 평가와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일이다.	-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수소법 제정('20) 및 '수소경제 활성화로드맵' 등 수소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수소안전을 관리하는 국가전문 자격 신설 계획 등에 따라 산업 현장 및 교육·훈련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필요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시스템설치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시스템설치는 제조업의 가치사슬과 기계, 설비, 유틸리티의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보안 기능 및 애플리케이션을 융합하여 설치하는 일이다.	'22년까지 스마트제조 인력 10만명 양성 추진하는 정책 목표에 따라, 신규 교육·훈련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계적인 인력양성 필요
	3D프린팅 소재개발	3D프린팅 소재개발은 수요산업별 요구에 따른 3D 프린팅 소재 개발을 위하여 시장조사, 기획, 개발, 평가, 안전관리를 하는 일이다.	- 기존 제조업의 형태를 변화시킨 3D프린팅은 "3D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산업 고성장 전망 - 국가기술자격* 신설과 관련하여 최신 산업기술의 변화 및 자격의 직무범위 반영 필요 *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스마트팜계측	스마트팜계측이란 스마트팜에서 최적 생산을 목적으로 센서·계측기기를 설치운용하고 생육과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계측하여 분석하는 일이다.	- 정부의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발표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농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 스마트팜 농업기사 자격신설을 계획하는 등 '22년까지 스마트팜 전문인력 600명 양성 계획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육성 필요
바이오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이란 유전정보를 갖는 생물에 특정한 유전형질을 갖는 유전자를 삽입(치환, 증폭, 결합), 제거하여 재조합 DNA 및 형질전환체를 제조하는 일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연구개발분야의 핵심 전문인력 부족함에 따라 인력양성 필요

분야	개발 NCS	직무정의	개발 필요성
지능형 네트 워크 구축	커넥티드카 콘텐츠서비스	커넥티드카 콘텐츠서비스는 커넥티드카의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안전성, 편의성, 오락성과 관련된 서비스와 콘텐츠 제공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콘텐츠와 서비스를 기획·개발·운영하는 일이다.	- 전기·자율주행차 산업은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4차 산업혁명분야 석박사급 기술인재 육성 필요 '22년까지 30만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표와 연계하여 융·복합분야 직무 교육 훈련 필요성 대두
	IoT시스템연동	IoT시스템 연동이란, Io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요소 간 연동 프로토콜을 분석하여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사물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 사물인터넷(IoT)은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 5대 유망 신산업 중 하나로 전문 인력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인력과 불균형이 발생하여 인력수급 애로 발생
	소셜미디어 방송서비스	소셜미디어 방송서비스는 기업 또는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기획, 제작, 유통 관리하는 일이다.	방송콘텐츠가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경로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변화된 산업현장을 위한 교육·훈련, 자격은 전무하므로 인력양성의 인프라 부족
데이터 산업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 구축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 구축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정의하고, 각 환경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하는 인프라 스트럭처를 설계, 구성하여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일이다.	- AI·빅데이터 등 ICT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목적에 맞도록 인프라의 설계, 구축을 위한 직무수요 급증 - 정보기술분야의 상위 수준의 NCS기반 자격 설계가 되어있으나, 관련 직무 내용 부재
인공 지능 R&D	라이다(LiDAR) 기기개발	라이다(LiDAR)기기개발이란 광원과 광검출기를 사용하여 원격의 공간정보 획득, 물성 관측을 수행하는 응용 기기를 개발하는 일이다.	- 라이다기술 개발은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 적용되는 4차 산업 핵심기술이며, 시장규모는 약 6억 달러로 전망 - 광융합 산업은 고도화 기술 및 높은 기술숙련도가 요구되나, 현재 구직자 및 피교육자의 인식결여와 현장-교육 미스매칭 등으로 인력양성 필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재료개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재료개발이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기능성 재료를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일이다.	-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노동시장 규모가 크고, 기술성장 잠재력도 높은 산업 - 산업인력 비중이 반도체에 이어 2번째로 높고, 기술인력 확보가 중요한 산업으로 신규인력 충원과 전문인력 육성 필요
	인공지능모델링	인공지능 모델링이란 기획된 인공지능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데이터를 확보, 가공, 학습,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최적의 인공지능 모델을 도출하는 일이다.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분야이나 낮은 인공지능기술 역량 및 인력 부족으로 해외-국내 간 기술 격차 심화

분야	개발 NCS	직무정의	개발 필요성
			· 인공지능 관련 전문학과* 신설됨에 따라 교육·훈련을 통한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필요 * 고려대학교, 가천대학교
정보 보호 R&D	블록체인서비스 기획	블록체인서비스 기획은 산업별 시장환경을 분석하여 블록체인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 인프라, 시스템·정보보안을 기획하며,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에 따라 22년까지 1만명 규모의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목표 · 연구센터, 관련학과 신설에 따라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 양성 필요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란 개인정보를 법령 등에 따라 생명주기별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일이다.	· ‘데이터3법’ 개정되어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마련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준비 · 개인정보보호 산업변화에 맞추어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전문가 양성 필요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플랫폼구축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요구사항과 환경 분석을 통하여 클라우드 플랫폼을 설계하고, 구현하여 시험하는 일이다.	·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 디지털화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이 핵심 화두로 떠오름 · 비대면경제 확산에 따른 디지털 일자리 창출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비해 인력공급이 부족하며,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
환경	상수관로시설 운영관리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수용가까지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관로를 비롯한 관련 시설물을 조사·진단하여 계획·운영·유지관리 하는 일이다.	· 상수도관 노후 및 파열·누수로 도로파손·건물침수 하는 등 생활안전에 대한 문제제기 * 부산 노후 상수도관 파열 사고(20.02.7) · 이에, 수도법 및 정부의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 시행에 의거, 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재직자 직무교육 등을 통한 전문인재 양성 필요
	하수관로시설 운영관리	하수관로시설운영관리는 하수를 처리시설로 수집·이송하거나 하천, 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 관로와 부속시설을 조사·진단하여 계획·운영·유지관리하는 일이다.	

장마철 대비 건설 현장 안전점검 실시

- 6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800여 개) 산업안전 감독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6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감독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지반 등의 붕괴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사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또한, 기습 폭우 및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화재위험 작업시 소화기구 비치와 감시자 배치,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장마철 주요 사고 사례》

- ❖ '19.5.29. 대전시 상수관로 안전점검 중 맨홀 내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망1, 부상2)
- ❖ '19.7.15. 진안군 문화재 시굴조사 중 굴착작업장 토사 붕괴(사망1, 부상1)
- ❖ '19.7.31. 서울시 빗물저류 배수시설 현장에서 기습적인 폭우로 배수터널 내부로 우수가 다량 유입(사망3)
- ❖ '19.8.13. 청주시 복합터미널 현장에서 휴식을 위한 그늘 이동 중 쓰러짐(사망1)

- 감독에 앞서 계도기간(6.8~6.19.)을 부여하여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또한, 건설현장에서 장마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가 포함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한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책 마당 - 정책 자료실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계도기간 이후(6.22~7.17.)에는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 붕괴위험

현장, 화재·폭발 및 추락위험이 많은 현장, 그리고 안전순찰 등을 통해 파악한 안전시설 불량현장 등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고(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작업공정이 수시로 변화하고 붕괴·화재·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 “이번 불시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류경호 사무관(☎ 044-202-77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개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16.7월)

○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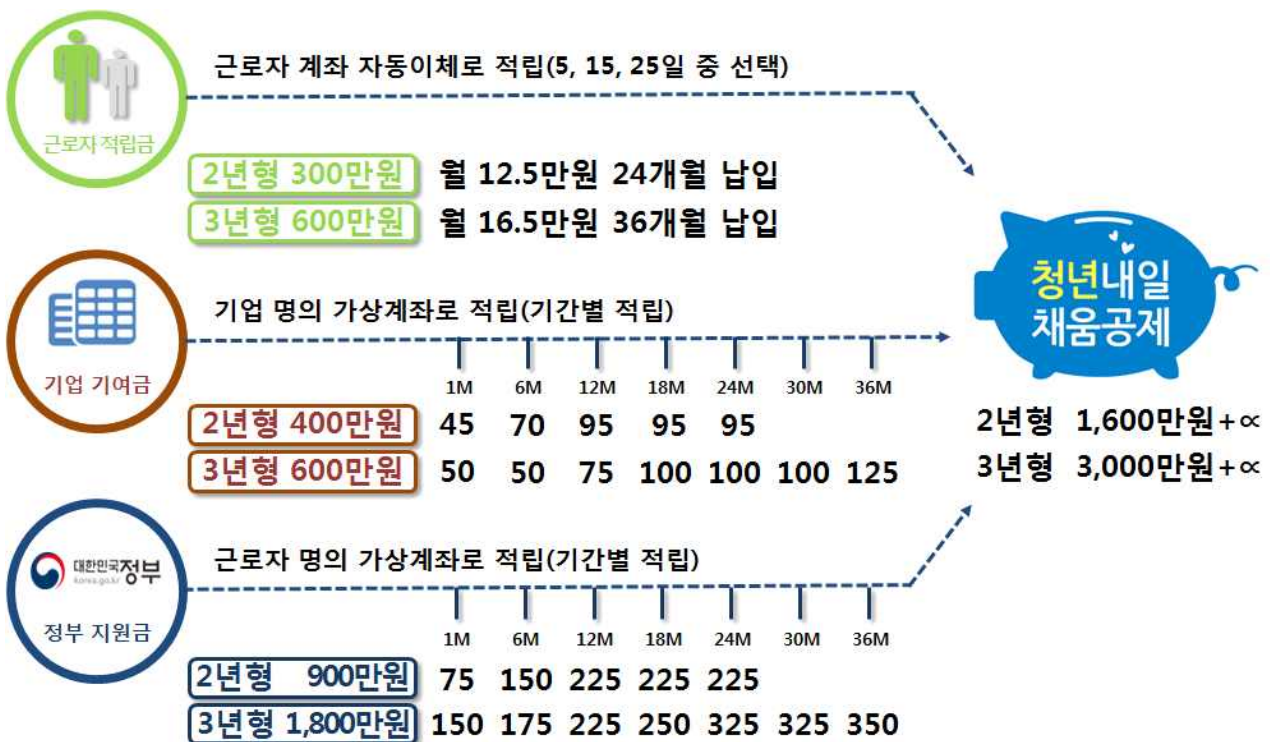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 가입 가능(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

□ **[지원방식]** 가입기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기업은 2년 450만원 또는 3년 67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

□ **[중도해지]**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

- (본인 납입분)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환급**(해지사유 무관, 2, 3년형 동일)
- (기업 기여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 (정부 지원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
(2년형은 50%, 3년형은 30% 수준)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총 4개소]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주)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02-2006-9583)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02-3399-7651)
인크루트알바콜(주)서울북부지사(02-2186-9059)	(사)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02-6959-5570)

2020 기업지원제도 안내

1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류

●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식자료실 →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업지원 등 주요 내용” 검색

1	고용창출장려금	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심사형, 요건형)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③ 국내복귀 기업 지원(심사형) 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심사형) ⑤ 고용촉진장려금지원
2	고용안정장려금	① 정규직 전환지원(심사형), ② 워라벨일자리장려금 ③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심사형), ④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3	고용유지지원금	① 고용유지지원금, ② 무급 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
4	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	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②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2 중복지원 사업 대상

양 장려금	중복 시	지원 비율
일자리 함께하기 (100% 지급)	고용창출장려금	+ 70% 추가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100% 추가지원

3 문의처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팀 (☎ 02-2171-1800~5)

○ 기업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고용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공모형)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1~2년 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최대 40만원 지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2년 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최대40만원, 1~2년 지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 청년(만15~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도 가능) 사업주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3년지원
	국내 복귀 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신중년적합 직무고용지원	·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гра임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고안장려금	정규직 전환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증가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1주당 5~10만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000만원 한도(기업당)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 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해당 근로자 1인당]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월30만원(대규모기업 제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30만원(대규모기업 10만원)
고유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지원사항 별도 문의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지원사항 별도 문의
장년·고령자 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 [지원수준]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하는 사업주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분기별 신청), 최대 2년간 지원